나눔으로 행복하게!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











Monthly
나눔과행복소식 (35호)

매월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소식을 묶어서 전해드립니다.
하루가 쌓여 계절이 되고,
계절이 쌓여 기록물이 될 것입니다.

2025.03

미션
MISSION

사람을 봅니다

모든 중심에 사람이 있는 세상, 사람을 봅니다.

비전
VISION

비전 2025

정직한 의료와 최적의 치료로 사랑받는 병원, 나눔과 행복

핵심가치
CORE VALUE

전문성

최고의 전문성을 지향하며
노력하고 성장하는 사람

공정함

사람을 대함에 있어
공정함을 유지하는 사람

사회적책임

더 나은 사회를 위해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람



진정성

진정성을 담아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

함께함

열린 소통, 배려, 공감으로
함께 나아가는 사람

즐거움

과정을 즐기고 보람을 느끼며
자아를 실현하는 사람

전문성을 근간으로 **진정성**을 담아, **공정함**으로 대하고 **함께함**을 느낄 때, **사회적책임**과 **즐거움**이 실현되는 곳!

전문성

최고의 전문성을 지향하며
노력하고 성장하는 사람









재활의료 센터 매니저 임명식 (03.26)

지난 3월 26일, 재활의료의 각 센터별 매니저 임명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해나행 재활파트의 의료진, 치료, 간호가 잘 어우러져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독수리5형제의 임명을 모두 한마음으로 축하해주세요!

-뇌신경재활센터 신지영
-척수손상재활센터 김종태
-일상생활재활센터 진경수
-외래재활센터 심규제
-언어인지재활전문센터 문서진











최고의 전문성을 지향하며 노력하고 성장하는 사람



2025년 2기 신입직원교육 첫 번째 만남 (03.08)

우리는 모두 새로운 여정을 시작할 때, 작은 발걸음으로 시작합니다. 그 첫 걸음이 단순한 시작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길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두려움이 앞설 수도 있지만, 그 두려움을 넘어서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성장의 시작입니다. 함께 성장해나갈 수 있는 첫 걸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발을 내딛는 순간은 언제나 설레고 기대되는 시간이죠. 앞으로 펼쳐질 모든 여정을 새로이 맞이한 해나행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앞으로 많은 소통과 공유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함께하는 이 여정을 소중히 여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성

최고의 전문성을 지향하며 노력하고 성장하는 사람

재활 2팀과 사회사업팀이 함께하는

그룹치료 프로그램 (03.15)

첫 번째 활동으로 나의 마음 그림 그리기와 걱정인형을 만들어보았습니다. 시작 전, 명상을 통해 편안한 호흡을 하며 내 감정과 몸 상태를 차근차근 들여다본 후 감정낙서, 자아상을 나타내는 나무를 그리며 스스로의 감정을 탐색하고 이를 통해 마음속에 담아둔 감정을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걱정 인형은 잠들기 전 인형에게 걱정을 털어놓으면, 인형이 그 걱정을 대신 가져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참여자들이 직접 만든 인형과 함께하면서,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지고 편안해지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재활2팀과 사회사업팀의
그룹치료 프로그램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웃음치료 프로그램 (03.08)

3월에도 한국문화예술복지부 러브뮤직에서 웃음치료 시간을 위해 본원을 찾아주셨습니다.

참여자, 보호자, 간병사 선생님들이 함께 어울려 노래하고 웃음으로써 마음속 답답함을 해소할 수 있는 시간. 소소하지만 특별한 토요일을 선사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는 4월 19일(토) 오후 3시 30분, 8병동 휴게실에서 진행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뉴스포츠 (03.17)

이날엔 신규참여자 3분이 참여하셨습니다. 보치아와 슐런에 대한 기본적인 규칙과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고 게임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보치아를 진행하였는데 보호자분과 팀을 이루어 게임을 진행하였습니다. 다들 처음 하셨는데 게임을 다들 잘하셔서 재밌었습니다. 슐런은 진행할 때 참여자분 손기능이 좋지 않아 펍을 굴리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방법을 찾기 위해 시간이 걸렸지만 자신만의 방법을 찾아 게임을 하였습니다.

보호자 분들이 같이 할 수 있어서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밖으로한걸음씩 (02.21 / 02.26)





퇴원이후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것을 알아보기 위해 신평역 근처에 있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다녀왔습니다. 멀리서 오셨다고 따뜻하게 맞이해주셨고 다양한 스포츠활동과 외부활동에 대해 듣고 김OO님은 긍정적인 기대감을 가졌습니다. 상담을 마친 후 집에서 휠체어이동에 있어 불편함이 있다고 하셔서 방문하였습니다.

주차장 지하를 통해 휠체어 이동하는 중에 경사가 급해 휠체어이동이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휠체어바이크를 통해 오르고 내리는 방법과 자세를 알려드리고 보호자분과 함께 연습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집에서는 워커를 이용하여 이동하셔서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화장실은 워커를 통해서는 불편함이 없었지만 휠체어로 들어가기에 공간이 좁아 보였습니다. 집으로 가시기 전 전환홈을 이용하실 예정인데 일상복귀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퇴원을 앞두고 자가 근처 경사로 및 이동의 편리를 위한 바이크 연습과 외부활동을 통한 기분전환 및 자신감 회복을 위해 진행 되었습니다. 보호자와 함께 외출 시에 휠체어 이동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설명하고 연습해 보았습니다.

참여자의 일상회복을 위한 동료상담 및 보호자 상담이 이루어 졌고 긍정적인 기대와 자신감을 가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일상재활센터(낮병동) 출석왕·자립왕 시상식 (03.07)



낮병동에서 사회와 연결되는 다양한 경험을 통해 열심히 재활과 자립을 준비하고 있는 참여자분들에게 축하드리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달 출석왕에는 박○진, 김○현 님이 수상하셨고, 자립왕에는 류○태, 강○주 님이 수상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축하해주시고 응원해주신 덕분에 수상을 받으시는 분들도, 축하해주시는 분들도 감격스러운 하루가 되었습니다!

연하치료 종결 참여자 상장 수여하기 22대 꿀꺽왕 시상식 (03.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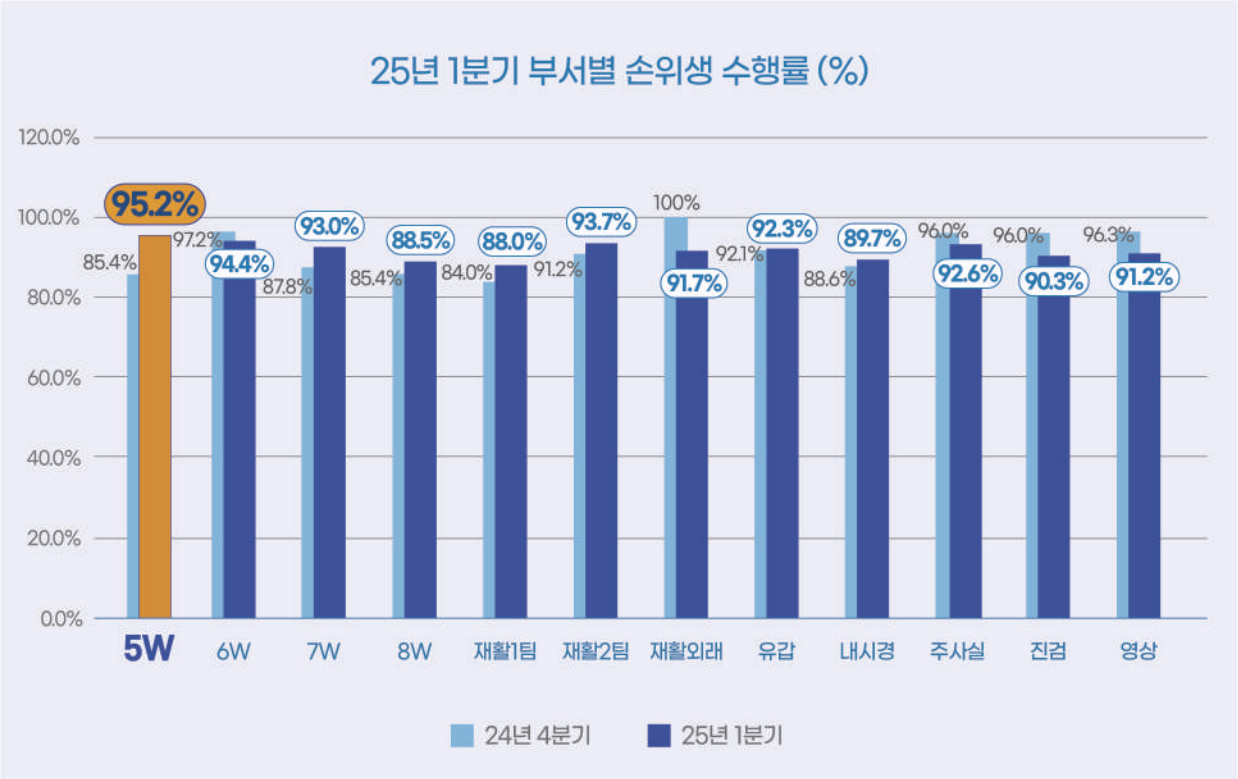
재활 2팀 연하파트에서 [연하치료 종결 참여자 상장 수여하기] TF를 구성하였습니다. 참여자분들이 안전하게 식사를 할 수있을 정도로 삼킴 기능이 향상되어 연하치료를 종결하게된 분들을 기념하고자 "꿀꺽왕"이라는 타이틀과 함께 상장을 수여합니다. 또한 연하치료실 명예의 전당에 명패를 올리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 22대 꿀꺽왕은 입원 후 외래로 치료를 받아오신 참여자 황○길 님이 선정되어 특별히 연하치료실에서 시상을 진행하였습니다.

먹는 즐거움을 알아갈 참여자분과 시상식을 통해 함께 축하하고 기쁨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5층 생활재활센터' 1분기 손위생 우수부서 (03.20)

분기별 손위생수행률 모니터링을 시행한 결과
2025년 1/4분기 손위생 우수부서에 5층 생활재활센터가 95.2%로 우수부서에 선정되었습니다.

우리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은 참여자분과 고객들의 감염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손위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손위생을 했는 지 물어봐주십시오~ 감염예방을 위한 손위생은 항상 준비되어있습니다!



2025년 3월 손위생 수행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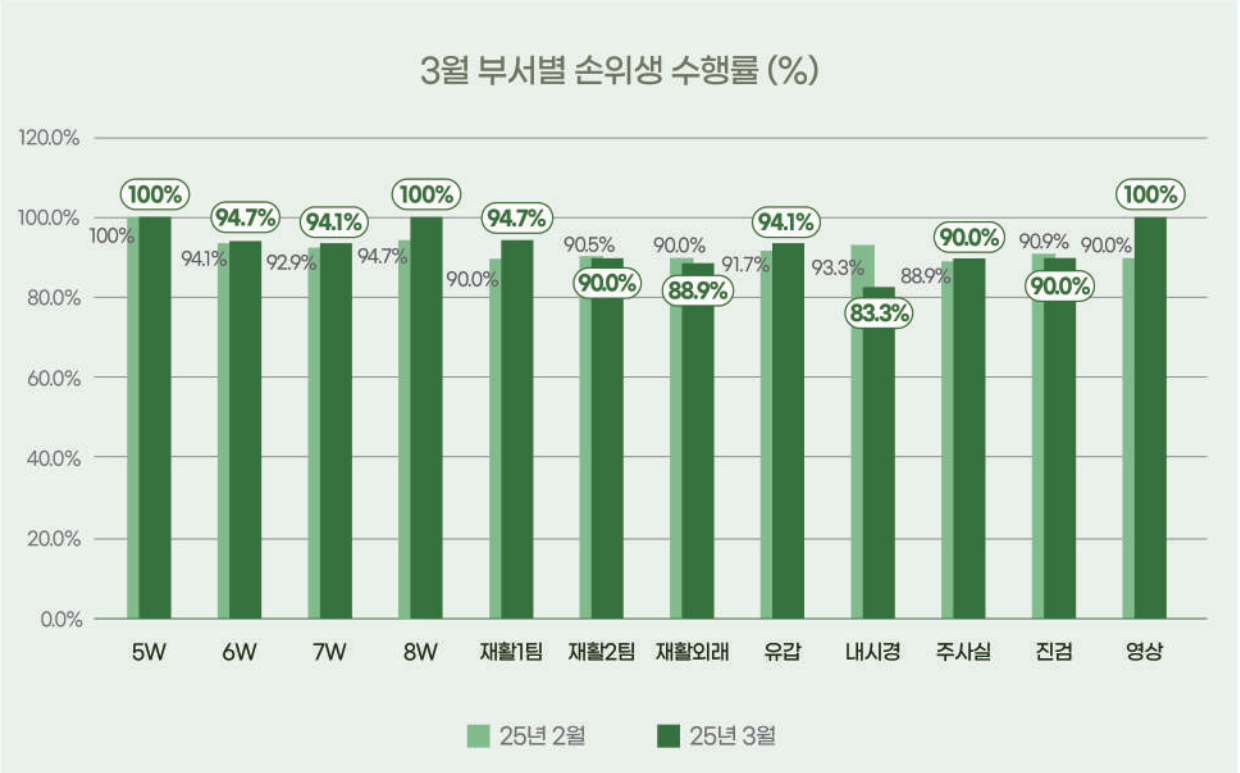
1. 손위생 수행률 결과

모니터링 **기간**	2025년 03월 01일 ~ 2025년 03월 31일
모니터링 **장소**	환자 접점 부서
모니터링 **방법**	직접 관찰 (손위생 실무 요원 및 감염관리전담간호사)
손위생 수행률(%)	실제 손위생 수행 건수/손위생을 해야 하는 행위 건수 X 100
모니터링 **결과**	2025년 2월 결과와 비교 분석

2. 지표 결과

목표(%)	전체 관찰건수(건)	수행건수(건)	결과(%)	전 분기 증감률
90	185	173	93.5%	+1.3%

3. 부서별 손위생 수행률



2025년 1분기 손위생 수행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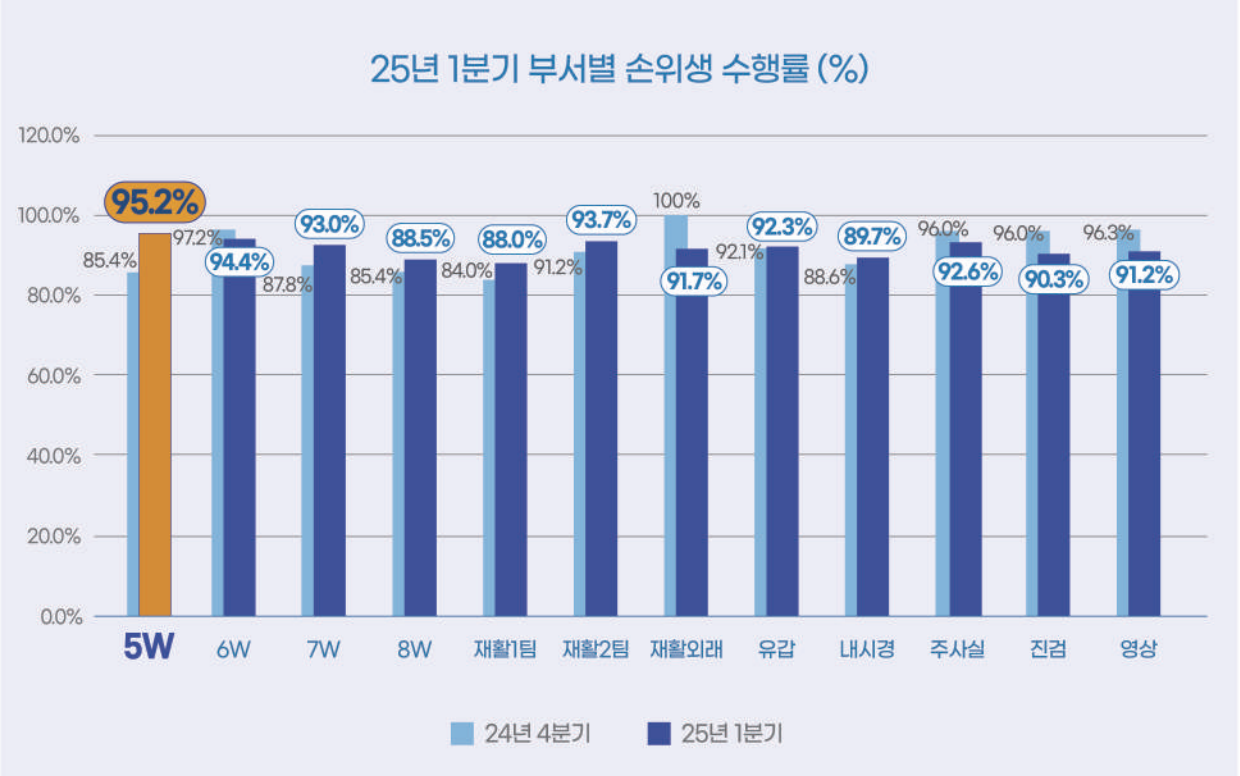
1. 손위생 수행률 결과

모니터링 **기간**	2025년 01월 01일 ~ 2025년 03월 31일
모니터링 **장소**	환자 접점 부서
모니터링 **방법**	직접 관찰 (손위생 실무 요원 및 감염관리전담간호사)
손위생 수행률(%)	실제 손위생 수행 건수/손위생을 해야 하는 행위 건수 X 100

2. 지표 결과

목표(%)	전체 관찰건수(건)	수행건수(건)	결과(%)	전 분기 증감률
90	535	490	91.6%	+ 1.2%

3. 부서별 손위생 수행률



전문성

최고의 전문성을 지향하며 노력하고 성장하는 사람

사회복귀지원이야기 열 네 번째 이야기

사회사업팀에서 준비하는 우리병원 사례입니다.

14

돌봄의 무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2023년, 참여자는 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 배우자와 함께 생활하며 일상에 어려움 없이 생활해 오던 중 2024년 5월 뇌경색으로 갑작스레 쓰러져 본원에서 재활치료를 시작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치료실로 이동하고, 지팡이로 조심스레 발걸음을 떼는 연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다녀간 것을 금방 잊기도 하고 최근 기억들이 혼란스럽고 흐릿해질 때가 있지만 참여자가 집으로 퇴원할 수 있기를 바라는 배우자의 마음은 선명했습니다.

이 가정이 마주한 현실은 참여자의 질병 하나로만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첫째 아들은 약 4년 전 뇌경색 발병하여 중증 뇌병변 장애를 안고 살아가고 있으며, 언어장애로 인해 의사소통, 사회활동이 어려워 사회적 관계를 단절하고 집 안에서 고립된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인 참여자와는 1년 넘게 말을 하지 않고, 어머니와도 필요한 소통만 이어가며 서로를 향한 안타까움에 다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참여자의 배우자는 간경화를 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증 장애인 아들과 뇌경색, 치매로 인지기능이 저하된 남편을 모두 돌보고 있습니다. 스스로의 건강상태를 돌볼 겨를도 없이 가족을 돌보며 막막함으로, 눈물로 일상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 함께 걷는 길

사회사업팀에서는 당시 참여자 자녀의 고립 문제 해결과 배우자의 돌봄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부산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에 연계하여 언어치료, 방문재활, 활동지원서비스 등을 안내하였고,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사회참여 활동, 기관을 연결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첫째 아들은 우려했던 대로 외부와의 접촉을 완전히 거부하였고 보호자에게 정보를 전달하여 설득해 나갈 수 있도록 수시로 상담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가족은 치료비 부담으로 입원 초기부터 수차례 퇴원을 계획했다가 치료 지속을 결심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가족의 의지에 힘을 보태기 위해 외부 치료비 지원사업에 신청하여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복합적인 문제들은 하나씩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참여자는 재활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재활 의지가 저하되어 있어 정서적 지지를 통해 보다 독립적으로 생활하실 수 있도록, 집으로 퇴원하실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여자가 자택 퇴원 시 첫째 아들의 폭력적 반응, 거부감으로 인해 가족들이 자택 복귀를 주저하게 되는 상황을 마주하고 있어 이 가족의 위태로움, 심각성을 깊이 이해하고 사례관리 해 나가고자 합니다. 시간을 두고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장애를 수용할 수 있도록 상담을 진행하고, 지역사회 안에서 사례관리 및 통합돌봄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연계망을 적극 활용하여, 단란한 가정으로 일상으로의 복귀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힘든 환경 속에서도 요양이 아닌 치료를 선택하였고, 가족의 해체가 아닌 화합을 꿈꾸는 가족을 위해 작은 버팀목이 되어드리며 함께하겠습니다.

참여자 주요 사항

<table>
<tr><td rowspan="6">참여자 사항</td><td>대상</td><td colspan="6"><table><tr><th>성별</th><th>나이</th><th>보호유형</th><th>대상질환</th><th>발병일</th><th>입원기간</th></tr><tr><td>남성</td><td>76</td><td>차상위 2종</td><td>뇌경색증</td><td>2024.05.</td><td>2024.06 ~ 입원중</td></tr></table></td></tr>
<tr><td>가족사항</td><td colspan="6">■ 가구형태 : 부부 자녀가구
■ 주보호자 : 배우자
■ 첫째 아들 동거(뇌병변 중증 장애인), 둘째 아들 비동거</td></tr>
<tr><td>심리·사회적 사항</td><td colspan="6">■ 배우자는 참여자 발병 전에도 배우자, 아들을 각각 케어해오고 관계 중재를 해오며
심리적, 신체적 부담을 느껴왔음
현재 본원 입원 참여자, 자택에 고립되어 있는 자녀를 각각 돌보며 매우 지쳐있는 상태</td></tr>
<tr><td>경제적 사항</td><td colspan="6">■ 참여자 부부 기초생활수급자 탈락, 차상위 2종으로 치료 지속 시 경제적 어려움 호소</td></tr>
<tr><td>주거사항</td><td colspan="6">■ 주거형태 : 상가건물 3층 거주
■ 주거환경 : E/V 없음, 계단 이용, 안전바 미설치</td></tr>
<tr><td>문제사항 및 욕구</td><td colspan="6">■ 경제적 어려움
■ 가족의 돌봄 부담
■ 자녀의 사회적 고립, 언어치료
■ 자녀와의 관계 회복</td></tr>
<tr><td rowspan="3">사회복귀 지원 프로그램 및 서비스 연계</td><td>사회복귀계획</td><td colspan="6">■ 퇴원경로 : 자택으로 퇴원 희망
■ 치료계획 : 외래치료 또는 방문 재활치료 고려</td></tr>
<tr><td>참여 프로그램</td><td colspan="6">■ 상담 : 참여자 및 보호자 수시 상담
■ 교육 : 슬기로운재활생활</td></tr>
<tr><td>지역자원 안내 및 연계</td><td colspan="6">■ 부산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언어치료, 활동지원서비스, 사회참여 등)
■ 생명나눔실천본부 치료비 지원사업 선정
■ 장기요양등급 신청 및 판정
■ 필요 시 혜임당 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 예정
■ 퇴원 시 통합돌봄 사업 신청 및 사례관리 대상자 연계 문의 예정</td></tr>
</ta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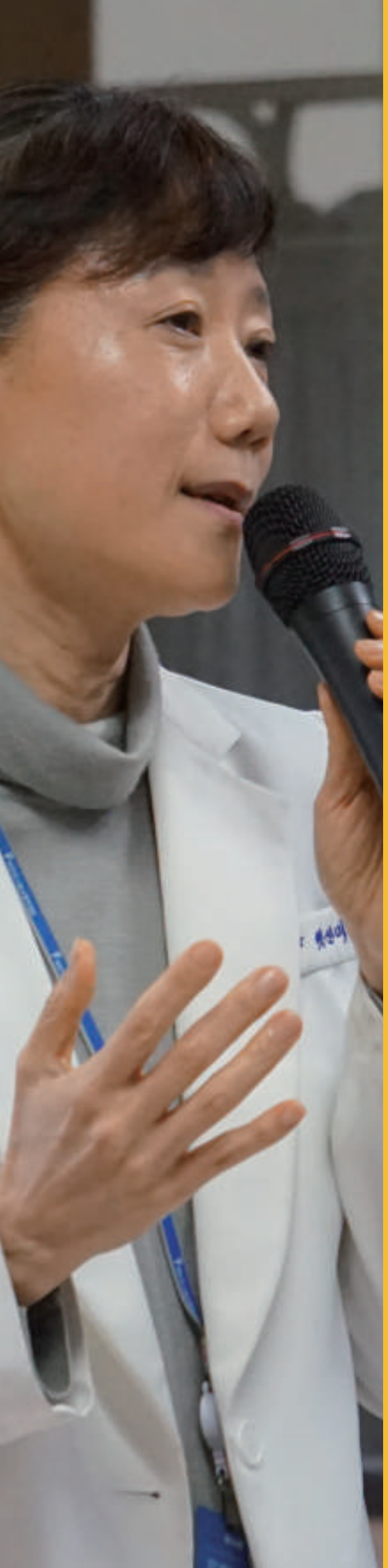
함께함

열린 소통, 배려, 공감으로
함께 나아가는 사람



비전 2025, 함께 이루는 여정





비전 2025, 함께 이루는 여정

2025 도약식 (03.04)

가치는 무언가를 소유하는 개념보다 함께 나누고 공유함으로써 형성된다는 관점이 더 타당할 수 있습니다. 병원이 가고자하는 목표와 방향을 공유할 때 더 큰 가치가 생길지도 모릅니다.

3월 4일 오후, 4층 재활치료실에서 전 직원이 한자리에 모여 올해의 목표와 방향을 공유하는 2025년 도약식이 진행되었습니다.

1부에서는 개회 및 프로그램 안내, 축사 영상 시청, 도약사, 주요 정책 및 일정, 2025 OKR 나누기를 진행하였고, 2부에서는 임명식과 승진자 소개, 다양한 소식 등을 전달하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병원장님께서 도약식을 통해 2025년도 한 해에 갈 목표와 중점적인 과제들을 함께 공유하고 시작하는 출발점이기도 하며, 크게 '비전', 'OKR', '투명경영', '평가와 보상'이라는 4가지 주제를 가지고 공유해주셨습니다.

도약식을 진행을 위해 한 달 전부터 기획하고, 회의하고, 준비하신 TF 구성원 포함 관련 팀/팀원 모두 수고많으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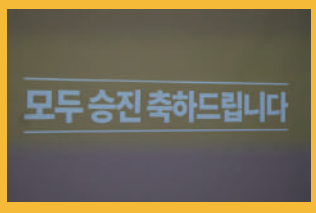


















함께함

열린 소통, 배려, 공감으로 함께 나아가는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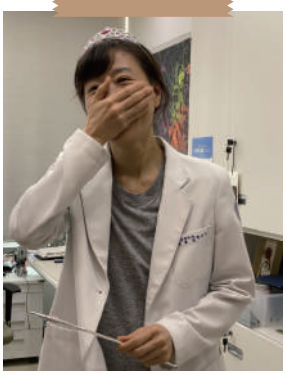
당신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직원생일선물 나눔 (1분기, 113명)



해나행 가족의 생일을 축하는 마음을 담아 선물 전달 및 축하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기존의 전달방식과 더불어 생일선물을 직접 수령하는 직원에게는 찾아가는 축하 이벤트를 함께 실시했습니다.

2분기에는 더 업그레이드 된 생일축하이벤트로 생일을 맞이한 해나행 가족들에게 아낌없는 축하와 추억을 함께 선물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니 많은 기대바랍니다.

생일자와 신규입사자에게 전하는
HR팀의 추천시(詩)

꽃

- 김춘수 -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03월의 신규입사자


재활치료2팀 권재원 작업치료사


HR팀 한성자 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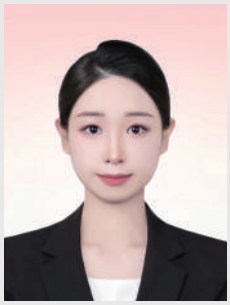

재활치료2팀 박지예 작업치료사


건강증진팀 김수민 팀원


재활간호팀(6W) 장유민 간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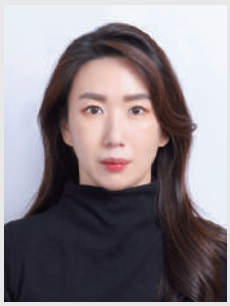

재활간호팀(7W) 이주희 간호사


재활간호팀(7W) 이효진 간호사


재활간호팀(5W) 박소연 간호사


재활간호팀(8W) 양다온 간호사


야간전담과 김기도 과장


내과내시경팀 신지원 간호조무사


갑상선유방팀 양정인 간호조무사


야간전담과 장준석 과장


심사팀 박자영 팀원

함께함

열린 소통, 배려, 공감으로 함께 나아가는 사람

사회적책임

더 나은 사회를 위해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람





이미용 서비스 (03.18 / 03.25)

사회사업팀에서는 입원 중인 참여자의 일상생활 편의를 위해 매월 이미용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총 79명의 참여자께서 서비스를 받으셨으며, 4명의 전문 자원봉사자께서 재능 나눔을 실천해 주신 덕분에 많은 분들에게 큰 활력소가 되고 있습니다.

늘 변함없이 따뜻한 손길을 전해 주시는 봉사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주요정책 정기배송

(by 조직문화성장실)

알아두면 좋은 정부정책을

알 기 쉽 게

새롭게 바뀌는 해나행 제도와 소식을

상 세 하 게

2025년 제3탄

슬기로운 연차사용

연차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1. 연차란 무엇인가요?

근로자의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서, 연단위로 부여되는 유급휴가입니다.

2. 연차는 어떻게 부여되나요?

① 1년 이상 근무하고 1년동안 80%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를 부여합니다.
② 연차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15일을 일괄 부여하고, 연간 차감하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③ 3년 이상 근무하면, 매 2년마다 1일씩 추가로 부여됩니다.
ex) 3년-16일 / 5년-17일 / 7년-18일
④ 다만, 근속기간이 오래되어도 무한정 연차가 부여되는 것은 아니고, 연차의 상한은 25일입니다.

3. 연차는 반드시 1년안에 다 써야하나요?

① 네, 해나행은 연차의 소진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다만, 미사용 연차가 있을 경우에는 수당으로 지급됩니다.
③ 미사용연차에 대한 수당은 입사일 기준 1년을 기점으로 정산하여 다음달 급여에 지급됩니다.

4. 신입직원의 연차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입사한지 1년 미만의 신입직원의 연차는 1개월 만근시 1개씩 발생해서, 최대 11개까지 부여됩니다.

2025년 7월부터, 연차선사용의 기준이 정해집니다.

1. 연차선사용

- 신입직원의 경우 본인에게 발생된 연차가 없는데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
- 기존직원의 경우 발생한 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향후 발생할 연차를 당겨쓰는 경우

2. 원칙: 선사용 불가

3. 선사용의 기준 : 부득이한 경우, 부서장의 허가를 얻어 사용

▶ 한도 : -5개
▶ 선사용연차는 다음 연차가 발생하는 즉시 차감
▶ 연사선사용 결재시 사유 상세히 기술.

4. 연차선사용 한도 초과시

▶ -5개 이상 선사용시 임금에서 공제
▶ 연차수당 발생시점과 같은 시기를 기준으로 공제
▶ [연차 선사용분 임금공제동의서] 필수제출 - 메디톡

5. 추진일정

① 운영위원회 결정 : 3월
② 전사적 공유 : 4월 중
③ 취업규칙 변경 : 5월~6월
④ 신규기준 실행일자 : 2025.07.01.(화)

주요정책 정기배송

(by 조직문화성장실)

알아두면 좋은 정부정책을

알 기 쉽 게

새롭게 바뀌는 해나행 제도와 소식을

상 세 하 게

2025년 제3탄

가족친화 인증기업 직원혜택

"나, 가족친화인증기업에 다니는 사람이야~!"

가족친화인증기업 직원 특별할인 및 혜택 안내

가족친화인증기업은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기관에 대해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증한 기업입니다. 해나행은 2024년말에 다시 인증되었습니다.
가족친화인증기업에 직원이라면 누릴 수 있는 각종 할인과 혜택이 많습니다.
놓치지 말고 알차게 활용하세요~
(이 내용은 2024년 12월말에 총무팀에서 단톡방에 잘 안내해주신 내용과 동일합니다.)

1. 이렇게 활용하세요~



가족친화인증기업(기관) 인센티브 제공
스티커를 신분증 또는 사원증에 부착
▼
인센티브제공 기업(기관) 제시
▼
할인혜택 적용

2. 각종혜택, 놓치지 않을꺼예요~

< 관광분야 >

▷**LCT 매니지먼트** : 숙박료 40% 할인 / 임직원
※ 유선(051-716-1077) 예약
→ 가족친화인증기업 임직원여부 및 스티커확인

▷**클럽디오아시스** : 정상가 기준 주중 35%, 주말 30% 할인(시즌에 따라 할인율 변동) / 임직원 및 동반3인까지

▷**흘리라운지** : 카운터 주문 결제 시 10% 할인 / 임직원

▷**제일항공여행사** : 요트투어 승선권(용호만 다이아몬드베이 유람선, 광안리 요트투어) 정가 20% 할인 / 임직원 및 동반3인까지

▷**스카이라인 루지** : 입장요금 10% 할인 / 임직원 및 동반4인

▷**부산롯데호텔** : 객실 패키지 5% 할인, 레스토랑 메뉴 10% 할인 / 임직원

▷**부산시티투어** : 이용요금 주말 순환노선 3,000원 할인 / 임직원 및 직계가족 4인까지

▷**블루뱅** : 제조음료 10% / 임직원 및 직계가족 4인까지

▷**태종대유원지** : 다누비열차 이용요금 30% 할인 / 임직원 및 직계가족 4인까지

▷**부산아쿠아리움** : 아쿠아리움 이용 시 입장요금 30% 할인 / 임직원 및 직계가족 3인까지

< 문화분야 >

▷**영화의전당** : 공연 최대 20%, 영화 1,000원, 스낵류, 제조음료 500원, 콤보(팝콘, 콜라)세트 1,000원 할인 / 임직원 및 동반4인까지

▷**서면미술관** : 입장요금 50% 할인 / 임직원 및 동반4인까지

▷**뮤지엄원** : 입장요금 최대 33% 할인 / 임직원 및 동반3인까지

▷**부산문화회관** : 기획공연 할인 10~30% 적용(예외있음) / 임직원 및 동반3인까지

▷**국립부산과학관** : 입장요금 50%할인 / 임직원 및 직계가족

▷**부산영화체험박물관** : 입장요금 30% 할인, 통합관람시 추가 1,000원 할인 / 임직원 및 직계가족

▷**삼진어묵체험역사관** : 체험요금 10%할인 / 임직원 및 직계가족

▷**낙동강생태탐방선** : 이용요금 전 코스 50% 할인 / 임직원 및 직계가족

▷**두루팜 체험농장** : 체험요금 10% 할인 / 임직원 및 직계가족

▷**서프흘릭(송정본점)** : 강습료 15%할인, 2층 카페홀릭 이용시 전메뉴 10% 할인 / 임직원 및 동반인원 제한없음

▷**키자니아부산** : 오전 5시간권 30% 할인, 오후권 35% 할인 / 임직원 및 동반3인까지

▷**도시농사꾼** : 빛팜 로컬푸드 매장 모든 제품 10% 할인, 스마트팜 견학 체험 10% 할인, 공간대여(파티룸, 큐브홀 등) 10% 할인 / 임직원

주요정책 정기배송

(by 조직문화성장실)

알아두면 좋은 정부정책을

알 기 쉽 게

새롭게 바뀌는 해나행 제도와 소식을

상 세 하 게

2025년 제3탄

가족친화 인증기업 직원혜택

"나, 가족친화인증기업에 다니는 사람이야~!"

< 생활분야 >

▷ **고래사스마트팜 쿠킹클래스** : 어묵구입액 10% 물품 추가 증정 / 임직원

▷ **피앤비솔루션 주식회사** : LG 가전제품 추가할인 3~4%(할인지점 : 홈플러스 아시아드점) / 임직원

▷ **비큡(BCOOP) 부산커피협동조합** : 레스토랑 식음료 이용시 10~20% 할인 / 임직원

▷ **광안리사진관** : 가족사진/ 리마인드 웨딩/ 프로필 사진 상품 30% 할인혜택 / 임직원

▷ **시오** : 와인구입시 VIP 회원 적용(20% 추가할인), 와인악세서리 및 우드 오르골 등 소품 VIP회원 적용(5% 추가 할인) / 임직원

▷ **인터스페이스** : 세트메뉴 10% 할인혜택 / 임직원

▷ **호운정** : 전메뉴 10% 할인혜택(주류,음료제외) / 임직원

< 의료분야 >

▷ **김병준 레다스흉부외과** : 하지정맥류 초음파 검사비 40% 할인 / 임직원

▷ **이샘병원** : 비급여본인부담금 15%, 검진수가 20% 할인 / 임직원

▷ **WS더블유에스치과** : 비보험 진료 20~30% 할인 / 임직원

▷ **누네빛안과** : 시력교정수술 최대30%, 비급여진료비 최대30% 할인 / 임직원

▷ **예바치과교정과 치과의원** : 부분치아교정 최대 10%, 전체치아교정 최대 10~15% 할인, 치아예방진료 10회기준 30%할인 / 임직원

▷ **수영센텀치과병원** : 비보험진료 10~20%할인(임플란트,크라운 등), 임플란트수술환자 예방진료 1회 무료 또는 예방진료 5회 기준 40%할인, 수면임플란트 수술 시 입원비 50% 할인, 스케일링 업그레이드(에어플로우 스케일링+불소도포), 임플란트 수술환자 비타민 수액케어 및 수술부위 치유 촉진 위한 DNA주사 무료 / 임직원

▷ **소중한눈안과** : 스마일라식,라섹,ICL,시력교정수술 10~30% 할인, 비급여 진료비 10~30% 할인, 12단계 50가지 백내장 종합검사 우대혜택, 3대 실명질환 (녹내장, 당뇨망막증, 황반병성)종합검진 우대혜택, 드림렌즈 최대 20%할인 / 임직원

‘손끝으로 맛을 수놓다’ 나행밥상 열 여섯 번째 이야기

참여자 분들께서 요청해주신 메뉴를 선정하여 정성껏 차려드립니다.

16

‘나행밥상’은 매월 참여자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원하시는 메뉴를 선사합니다.

자장면 & 탕수육







‘드시고 싶은 음식 없으세요?’ 라는 질문에
‘자장면’, ‘탕수육’이라고 답변을 주셔서
중화요리의 대표 주자이자,
우리가 가장 자신 있어 하는 메뉴인
자장면&탕수육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졸업식에 당~연히 먹고, 이사할 때도 당~연히 먹은,
우리의 추억 속 한 부분을 당~연히 차지하고 있는
누구나 좋아하는 자장면과 그 짝꿍인 탕수육으로
즐거웠던 그 시절로 잠시 돌아가 보는 것은 어떨까요?

볶은 춘장에 각종 야채와 고기로
감칠맛 폭발하는 소스를 만들어 준비하고,
중화면을 쫄깃쫄깃하게 삶아 준비하면,
현란한 기술로 비벼 주기만을 간절하게 기다리는
자장면이 완성됩니다.

여기에 바삭하게 튀긴 돼지고기에
새콤 달콤 비법 소스로 맛을 낸 탕수육까지 더하면,
환상적인 짝꿍인 자장면과 탕수육이
즐거운 한 끼를 책임져 줄 것임을 의심치 않습니다.

지치고 힘든 치료 과정 속에서 내가 좋아하고,
추억하는 음식으로 그 힘듦을 잠시나마 내려놓고
온전히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 보시길 바랍니다.

아직은 추위가 봄을 시샘하여 머물고 있기에
추위가 잘 지나갈 때 까지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라며,
따듯한 봄바람이 불 때
열일곱 번째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영양팀장의 말,말,말

카카오워크에서 전한 글입니다. (03.04)

몽글몽글해진 마음

이런 고민들을 해 보았습니다.

다시 돌아온 우리의 도약식!
도약식이면 도약과 관련된 뭔가를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럼 도약을 잘 하는 토끼나 개구리, 메뚜기를...
식재료로...해야...할까..?
아...거기까진 가지말자ㅎㅎ

그리하여 고민을 거듭한 끝에
도약식 워밍업으로
마음을 몽글몽글하게 할 메뉴를 선정해 보았습니다.

요즘 핫하다는 동파육으로 덮밥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감칠맛 폭발하는 동파육 덮밥으로 시작하여
상큼한 곤약젤리로 마무리를 하면
마음이 몽글몽글 해 질까요?

몽글몽글해진 마음
도약식까지 쭉 이어가서
설렘과 축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정성껏 준비하셨을
'비전 2025. 함께 이루는 여정'
2025 도약식을 온전히 즐기시길 바랍니다.



홍보팀장의 '브런치' 서른 다섯 번째 이야기

브런치는 글이 작품이 되는 공간입니다.

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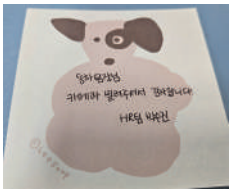
이름을 불러주는 감동의 순간

나도 모르게 스쳐지나간 수많은 이름들.

태아나면서 내가 받아 든 숫자는 770505다. 대학 시절엔 9604051, 군 복무 중에는 97-76055640이었다. 첫 직장에서는 '김쌤'으로 불렸고, 두 번째 직장에선 '김대리'에서 '김과장'으로, 현재는 '실장'에서 '과장', 그리고 '팀장'으로 불리고 있다. 앞에 '홍보팀장'이라는 단어가 붙기도 한다. 이렇게 숫자와 직책만이 존재할 뿐, 내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다.

> 나도 모르게 스쳐지나간 수많은 이름들
> 너무나 사소해서 무심결에 지나치는 것들이
> 때로는 가장 의미 있는 건지도 모른다.
> _김이율《익숙해지지 마라. 행복이 멀어진다》(지식너머)

3월 둘째 주 출근하니, 책상 위에 메모가 남겨져 있었다. "동하팀장님, 카메라 빌려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내용이었다. HR팀의 박수진 선생님이 남긴 메모였다. 아마 지난 토요일 신규 직원 교육에서 사용한 카메라를 반납하면서 쓴 것 같았다. 수진쌤은 HR팀에 들어온 지 몇 달밖에 되지 않은 새내기 직원으로, 이곳이 첫 직장인 것으로 기억한다. 그러니 내 나이보다 두 배 이상 차이가 날 것 같다. 사실 그녀의 나이를 모르는 나는 어림짐작할 뿐이다.



그런데 메모에서 그녀는 '동하팀장님'이라고 내 이름을 적어놓았다. 보통 다른 부서의 직책자나 나이 차이가 나는 직원에게는 부서와 직책을 쓰는 법인데,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다. 가끔 동갑내기 선미실장이 내 이름을 '동하팀장'이라고 부른 기억이 있지만, 이렇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쌤에게 직접적으로 불려본 건 신기하고 고맙기까지 했다.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 컴퓨터를 켰고, 몇 번의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고마움을 전했다.

며칠 후,

간호팀의 부팀장님과 업무 관련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주로 안내문이나 출력물에 대한 부탁이었고, 내 업무 중 하나는 이를 깔끔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었다. 그러던 중 나이에 대한 대화가 이어졌고, 50을 목전에 두고 있는 나와 이미 50이 된 그녀의 어설프고 유치한 대화가 흘렀다. 대화 말미에 즐거운 저녁을 보내시라는 인사를 하며 이름을 불러드렸다. 며칠 전의 에피소드와 함께 일부러 의도된 연출이었다. 부팀장님은 자신의 이름이 촌스럽다며 낯설고 익숙하지 않다고 웃었다. 나는 그 멋진 이름으로 라임을 만들어 선물하겠다고 약속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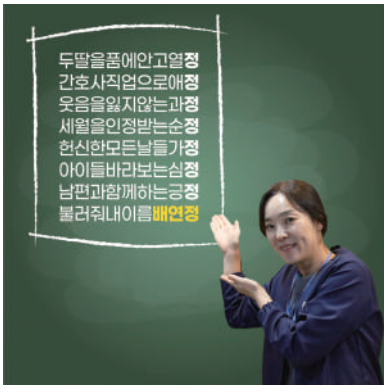
다음 날 아침,

네이버 국어사전을 검색해 '연'으로 시작하고 '정'으로 끝나는 단어들을 수집했다. 그 중 의미가 좋은 '정'으로 끝나는 단어들을 선택했다. 주로 8행시로 시를 짓는데, 단어는 넉넉하게 10개 정도 정했다. 여러 번 고치고 다시 쓰기를 반복한 끝에 하나의 8행시가 완성되었다. 여기에 디자인 컨셉을 잡아 꾸미고, 사진까지 넣어주면 작품이 완성됐다.

> 이름! 조금만 신경쓰면 상대방도 기분 좋아지고
> 나역시 즐거워지는 삶의 열쇠다!
> _김이율《익숙해지지 마라. 행복이 멀어진다》(지식너머)

이렇게 완성된 작품을 아침 일찍 깜짝 선물했더니, 나도 그녀도 하루를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었다. 직장에서 상대방의 이름과 직책을 부르는 문화는 아직 낯설고 어색하다. 하지만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주고, 내 이름이 불려진다면 평소 느끼지 못한 새로운 감정을 만날 수 있다. 조금만 신경 쓰면 서로가 기분 좋아지고 즐거운 느낌을 나눌 수 있다.

선미 병원장님?
ㅋㅋㅋㅋㅋㅋ
이건 무리다.
ㅋㅋㅋㅋㅋ



오늘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기억**합니다.
그날을 **추억**합니다.

공유하는 기억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앞으로도 계속 함께 갈 수 있습니다.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 월간소식지

발행일 2025년 03월 31일
편집인 홍보팀
발행처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

http://www.snh.or.kr